



주민 속에 살아 숨쉬는 자연 하천을 꿈꾼다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글 윤중환 · 사진 현명진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은 도림천을 맑고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주민 속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 하천의 소중함을 아는 그들에게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물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다.



▲ 유정희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회원들

엄마, 아빠 도림천에 놀러가요

매년 7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도림천변에 가면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도림천 영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들은 상류에서 내려온 하천 물에 몸을 담그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한쪽에서는 도림천변 벽에 예쁜 벽화를 그리는 일에 여념이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 아빠는 다리 그늘에 자리를 깔고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다. 날이 저물면 다함께 모여 공연과 영화를 감상하고 불꽃놀이로 축제를 마감한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던 지난 7월 24일, ‘도림천 영상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이 행사는 ‘엄마, 아빠 도림천에 놀러가요’라는 주제로 23, 24일 양일간 펼쳐졌는데, 벽화그리기와 영상제를 통해 주민들 속에 살아있는 도시 하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천이라는 공간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물장구도 치고 먹도 잡고 빨래도 하던 생활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에 덮여서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개천의 이미지가 더러운 물이 흐르는 하수구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시원한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주민 속에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도림천 영상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도림천 영상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의 유정희 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도림천은 흐르고 싶다!

‘도림천 영상제’는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에서 펼치고 있는 친수공간조성 활동 중에 하나이다. 도림천 영상제와 벽화 그리기 외에 도림천 청소하기, 수질정화 식물 식재, 도림천 복개 구간 체험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도림천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모임은 지난 1996년 ‘도림천 복개반대운동’을 모태로 시작되었고, 1999년 2월에 정식 발족하였다. 당시 관악구는 도림천 복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도림천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 한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가 반대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복개반대운동은 실패로 돌아가 부분복개로 저지하는데 그쳤다. 이 일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임이 창립되었다.

“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치자면 싹뿔줄과 같이 생명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 살아야 강도 살고 바다도 살아 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자치제 선거 때 ‘더 이상의 복개는 없다’는 공약이 나왔

지만, 도림천에 맑은 물이 쿵쿵 넘쳐흘러 자연 하천의 상태로 복원 될 때 까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도림천’ 모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삭막한 도시에 피어나는 자연 하천의 꿈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은 유정희 대표를 비롯하여 상근간사, 그리고 8명의 자문위원과 10명의 운영위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100여명의 정회원과 그 가족들이 모임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행사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임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환경 교육이고, 두 번째가 환경 정책을 만드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도림천 영상제’와 같은 문화 활동이다.

“도림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물절약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절수기 보급과 관련하여 관내에서 절수기를 사용할 때의 절수율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를 자료화했습니다. 행정 당국은 물론이고 어느 단체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저희가 한 것이죠.”

관내에서 실시한 절수율 모니터는 절수기 사용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물절약에 대한 실질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의 의미가 크다. 이처럼 ‘건강한 도림천’ 모임은 도림천을 자연 하천으로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단순한 이상이나 순진한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주목되는 단체이다.

유정희 대표는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들 스스로가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져줄 것과 지역 사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삭막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푸른 숲이 숨쉬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 공간을 꿈꾼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꿈만으로는 우리의 자연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나가고 있다. 살아 숨쉬는 도림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은 지금 일어나 움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도림천 벽화그리기 행사



▲ 도림천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들